

한국인에 있어서 무치악 환자의 인공치아 선택 방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김 성 훈

무치악 환자에서 안모의 조화로움은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안모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의치와 관계가 있다. 인공치아의 크기, 모양, 배열, 위치, 치은 모양 등이 고려되어야 될 중요한 사항이며 특히 전치의 모양이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인공치아의 선택은 환자의 심미성과 기능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많은 경험과 확신을 요구한다. 인공 치아를 선택하는 데 이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론 2가지가 있다.

첫째, Temperamental theory (White, 1884 : Hall 1886)이다. 이것은 환자의 신체적 크기나 형태, 눈이나 머리카락의 색상, 성격등에 따라 인공치아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19세기 후반 66년동안 일반적으로 이용되다가 이후 이 기초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1956년 Frush와 Fisher가 치아의 선택을 성별, 성격, 나이에 따라 하는 Dentogenic theory를 발표하였다.

둘째, Tupal matching theory (Williams, 1914)이다. 이는 인공 치아의 선택에 있어서 위의 방법을 부정한 것으로 환자의 안모에 기초를 둔 새로운 방법이다. 즉 선택된 상악 전치가 환자의 안모와 유사할 때 가장 조화롭고 만족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90여년 이용되고 있지만 이 이론을 지지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별로 없다.

본 연구는 의치의 인공치아 선택 방법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Williams가 주장한 tupal matching theory가 한국인에게서 얼마나 유용성이 있나를 검증하는 것이다. 상악 중절치에 보철 치료가 되지 않은 자연치를 가진 성인 300명을 표본으로 상악 중절치의 치근단 방사선 사진과 안모의 형태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인에게서 상악 중절치와 안모의 형태간에 유의한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tupal matching theory가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이용 방법이 간단하고 쉬우며 무치악 환자에서 안모와 가장 잘 어울려 심미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 주는 인공치아의 선택 방법인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로 의치가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공치아의 형태 뿐만 아니라 크기, 위치, 배열등 여러가지 요소를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